

# 뭄바이 테러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뭄바이 테러 및 인도정부의 향후 대책 / 3

---

- 3 | 가. 뭄바이 테러 개요
- 5 | 나. 인도 정부의 향후 대책

#### II. 인도 경제 파급영향 / 8

---

- 8 | 가. 개관
- 10 | 나. 산업별 영향

#### III. 우리의 대인도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13

---

- 13 | 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3 | 나. 현지 진출기업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14 | 다. 현지 주요 반응
- 19 | 라. 뭄바이 테러에 따른 새로운 기회시장



## 요 약

지난 11월 26일 발생한 몌바이 테러로 인도 보안시장 진출이 유망하며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인도 현지 주요기업, 정부관계자, 한국 상품 수입 바이어 등 20여명과와 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다.

인도정부는 이번 테러를 계기로 보안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보안설비의 현대화는 물론 호텔, 공항, 쇼핑몰, 병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쇄회로 카메라, 디지털 위키토키, 위험물 탐지기, 방탄자켓, 테러진압장비 등 보안장비에 대한 특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2008년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원만 500만명에 이르는 인도의 보안시장 규모는 20억불로 추산된다. 데이터분석, 생물인식시스템, 센서탐지기와 같은 탐색 및 감시 솔루션 시장은 시장규모 3억 6천만불에 연평균 30% 이상 성장 중이다.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탐지 분석 추적하는 비디오분석 전자장비 시장은 연평균 65%의 고속성장을 기록 중인데 내년 시장규모가 8억 4천만불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몌바이 테러는 주요 외신이 전하는 것과는 달리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관광, 소매유통업 및 컨벤션 산업에 타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 내 대부분의 기업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테러를 경영위험 요소로 미리 반영하고 있다. 과거 5년 동안 10여건의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몌바이 테러 역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진행 중인 것도 이번 테러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테러의 배후가 밝혀지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한 것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국가리스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인도 내 중장기 투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은 내다봤다. 한편, 인도는 우리의 10대 수출국이며, 우리의 2008년 대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85억불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LG전자 등 총 340여개사가 첸나이(159개사), 뉴델리(130개사), 몌바이(49개사) 등에 진출해 있다.

## 1. 뭄바이 테러 및 인도정부의 향후 대책

### 가. 뭄바이 테러 개요

□ 발생일 : 2008.11.26-29일

□ 발생지역 : 뭄바이 남부 비즈니스 중심지역의 11개처

- Taj Mahal 호텔, Oberoi 호텔, JW Marriott 호텔, CST기차역, Ville Parle, Colaba Cafe Leofold, Metro Cinema 인근 등

#### 인도 뭄바이는?

- 인구 1,800만으로 1조불에 이르는 인도 경제의 5% 차지
- 인도 전체 산업생산의 25%, 해상무역의 40%, 자본거래의 70%를 차지하는 인도 경제의 중추 역할 수행
- 상업 및 금융 중심지이자 인도영화계를 뜻하는 Bollywood 영화산업의 발상지

□ 피해상황 : 사망자 188명 등 50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테러용의자 : Deccan Mujahideen(이슬람 무장단체)

- 시가지 총격전, 폭탄 및 수류탄 투척, 인질극 등으로 그 동안 인도 내에서 자주 발생한 시한폭탄 테러와는 양상이 달라 다른 이슬람조직의 테러단체로 추정(주요 테러 사례 참조)

- 금번 뭄바이 테러는 '인도판 911', '뭄바이 전쟁'으로 비유

- 이 테러로 연방정부 쉬브라지 파틸 (Shivraj Patil) 내무부장관이 경질되고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수상 및 부수상 동반 사퇴

## [인도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 사례]

발생일	장소	인명피해 (명)	증시영향 (익일/1개월후)	비 고
93. 3.12	뭄바이	사망 257	2.55%/-5.86%	연쇄폭탄 13개
03. 8.25	뭄바이	사망 46	0.26%/10.68%	폭탄 2개
05.10.29	뉴델리	사망 62	-0.48%/5.75%	폭탄 3개 (힌두축제 기간)
06. 3. 7	바라나시	사망 20	-2.02%/8.05%	폭탄 3개 (힌두사원, 기차역)
06. 7.11	뭄바이	사망 200 부상 700	2.97%/5.04%	열차 폭탄 7개
07. 8.25	하이데라 바드	사망 42 부상 50	2.89%/16.78%	폭탄 3개 (공원, 식당), 테러 익일, 19개의 추가 폭발물이 곳곳에서 발견
08. 5.13	자이푸르	사망 80 부상 216	1.35%/-8.97%	폭탄 7개 (힌두사원, 시장 등)
08. 7.26	아메다 바 드	사망 45 부상 161	0.52%/1.23%	시내 폭탄 16개 (자전거에 설치)
08. 9.13	뉴델리	사망 21 부상 100	-3.35%/-19.23%	쇼핑몰 폭탄 5개
08.10.30	아쌌주 구와하띠	사망 68 부상 335	n/a	폭탄 11개, 총 80kg
08.11.26	뭄바이	사망 188 부상 313	0.73%/n/a	총격, 수류탄 투척

## 나. 인도 정부의 향후 대책

### □ 추가 테러 가능성

- 뭄바이 테러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힌 Deccan Mujahideen(이슬람 무장단체)은 조만간 뉴델리, 방갈로르, 첸나이 공항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
  -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공항 외에도 해상을 통한 테러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요 항구에 특수부대 파견 등 경계를 강화
- NASSCOM(인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관련 협회)의 Mittal 사장은 앞으로의 테러는 가상의 디지털상에서 정보테러가 수반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와 아울러 IT-BPO<sup>1)</sup>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00만명 의 직원에 대한 안전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 뉴델리 등 주요 도시의 혼잡지역에 대한 대규모 추가 테러 가능성 상존에 따라 대규모 상업지구 등 혼잡지역에 대한 통행이 자제되고 있음
  -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Deccan Mujahideen이 다음 테러 목표로 수도인 뉴델리의 인디라간디 국제공항과 3개 주요 메트로역을 지목했다고 경고
  - CNG를 원료로 사용하는 오토릭사(3륜차)에 폭발물을 탑재해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각종 주요 시설에서 오토릭사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 및 출입을 불허

### □ 이해 당사국 반응 및 향후 관계 전망

- 인도 정부가 이번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알카에다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아시아 최대 이슬람 무장단체인 '라시카르-에-타이바'를 지목하면서 2004년 이후 해빙 무드에 접어든 인도와 파키스탄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조짐

1)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은 구매, 인사, CRM 등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일부 또는 전체를 전문 IT 서비스 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하는 서비스

- 인도정부는 생포한 테러범 1명을 심문한 후, 이번 테러를 주도한 10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1년 이상 고도의 테러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연루된 20명의 배후 세력의 신병을 인도에 인도해 줄 것을 파키스탄 정부에 요청
-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정당한 근거없이 20명의 신병을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양국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
- 양국의 긴장관계 해소를 위하여 급파된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뭄바이 테러 배후 수사 및 무장테러단체 소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
- \* 이번 테러로 자국민 6명이 희생된 미국은 FBI 요원 파견을 통한 후속수사 지원 및 향후의 테러 방지를 위한 인도정부와의 결속을 다지고 있어, 앞으로 미-인도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전망
- 이번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단기적으로 외교마찰을포함한 관계악화가 예상됨
  -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라시카르-에-타이바' 무장단체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양국간 위기가 일층 고조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미국이 양국간 긴장해소와 테러방지를 위해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 '라시카르-에-타이바' 무장단체에 대한 소탕 작전도 추진될 전망

#### □ 인도정부의 향후 대테러 대책

- 인도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해 앞으로 아래와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결정
  - 연방수사국(FIA)의 설치 및 운영

- 국가보안특수부대(NSG) 확대개편 및 현재 뉴델리에 국한되어 있는 NSG의 몹바이, 콜카타 등 4개 대도시 배치
  - \* NSG 부대 병력 : 7,339명
-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안경찰서를 연계한 해상 및 항공 보안시스템 구축 및 경계 강화
- 방파제, 감시타워 및 해안경찰서 설치
- 경찰력 확대 : 100만명 증원(현재 120만명)
  - \* 인도는 인구 10만명당 경찰수가 126명으로 유럽의 400-500명 에 비하여 1/4 수준에 불과
- 보안장비 확충 및 설비의 현대화
- 호텔 보안안전기준 의무화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안법규도입
- 빌딩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안전 및 보안설비강화 법규 도입



## 2. 인도 경제 파급영향

### 가. 개관

#### □ 단기적 영향

- 뭄바이 주식시장(BSE Sensex)은 금번 테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
  - 테러 발생 익일인 11.27일, 인도 주식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BSE, NSE는 하루 임시 휴장한 뒤, 28일부터 정상적인 거래 시작
  - 테러 당일인 11.26일, 8,774.5로 장을 종료한 센섹스지수는 산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28일 9,092.66으로 오히려 반등했고, 12.4일 현재 9,229.75로 오름세

#### [테러 이후 센섹스지수 변화 추이]



- 테러로 인한 실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더하여 인도 경제에 단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전망
  -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뭄바이 남부지역 대부분의 현지 기업이 11.27일부터 2일간 임시휴업하여 인도내 경제 중심인 뭄바이 비즈니스가 사실상 정지

- 여행, 관광산업, 오락, 요식업, 소매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악영향 초래
  - 이들 분야에서 2일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약 100억불<sup>2)</sup>에 달한 것으로 추산
  - 테러 대상이 된 호텔의 직접적인 피해액과 향후 장기 수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계상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
    - \* 인도 정부의 주요 호텔에 대한 각종 행사개최 연기 권고로 뭄바이 지역 호텔 투숙률이 60% 이하로 하락
  - 뭄바이 시내 만 여가에 달하는 보석업계가 테러기간중 입은 영업손실액 규모는 3일간 약 2억 4천만불에 달했다고 인도 귀금속 관련 협회가 추정
- 테러발생후 국제회의, 경제사절단, 국제전시회의 취소 또는 연기사태 발생
  - 미국 원자력 사절단(30개사 50명)방문 연기(12.2~9, 뉴델리)
  - 세계 에이즈날 캠페인대회, 국제크롬개발협회 회의, KPMG 글로벌회의(India goes global), 등 취소
  - 테러 직후 개최 예정이었던 인도 최대의 제약전시회 내년으로 긴급히 연기(11.28-30, 뭄바이)
    - \* 전시참가업체 1,500개사 및 1만명 이상의 내방객 철수로 1억불 상당의 비즈니스 기회 손실

□ 중·장기적 영향

- 중·장기적으로는 테러로 인한 영향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더 큰 문제로 인식
  - 금년도 1,1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GDP기준 2.4%의 경상수지 적자, 8.8%의 높은 인플레이션, 루피화 25% 상승, 산업생산의 급격한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 하향세 당분간 지속 전망
    - \*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에서 올해 6.6~7%로 낮아질 전망이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는 0.5~0.75%의 추가 하락도 예상

2) 뭄바이 도시기능이 60시간 마비되면서 외환, 증권 및 상품시장에서 발생한 추정 손실액

- 인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외국인 직접투자(FDI)면에서는 이번 테러가 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금년 8월까지 유입된 FDI는 14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2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 침체 및 테러라는 추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가지는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선호지역으로서의 경쟁우위는 지속될 전망

## 나. 산업별 영향

### □ 여행 및 호텔산업

- 여행산업 전체에 걸쳐 테러로 인한 타격 심각
- 금융위기 여파로 11월중 관광객이 25-35% 감소된데다 테러의 영향이 겹쳐 예년에 비하여 약 50%의 감소가 예상  
(인도 여행업체 연합 집행위원 Zakkir Ahmed씨)
- 현재 20개 국가가 인도를 위험지역으로 지정, 인도여행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테러 발생 이후 몇 일사이 외국인의 인도관광 예약 취소률이 15%에 육박  
(인도관광사업자협회)
- 인도 정부의 주요 호텔에 대한 각종 행사개최 연기 권고(뭄바이 지역)
- 추가 테러위험을 고려 인도정부가 주요 호텔에 대해 각종 행사의 개최를 연기토록 권고하고 있어, 최근 호텔 투숙율이 60% 이하로 하락
  - \* 숙박업 관련업체는 테러 발생전부터 경기침체 영향으로 투숙율이 20% 하락하고 객실 요율도 30-5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테러 이후 영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뉴델리-아우랑가바드-뭄바이 구간을 운행하는 인도 최고급 열차인 Deccan Odyssey에 대해 인도정부가 내년 2월까지 운행 중단 권고

□ 소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 테러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과 복합영화관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져 단기적으로 멀티플렉스는 20~25%까지 매출이 감소할 전망
  - 뭄바이 시내에는 75개의 복합영화관과 30개의 단일 개봉관이 있으며 주말 기준 통상 75%의 착석률을 보이나, 테러 직후 착석률은 약 35~45%에 불과한 실정
  - 뭄바이 시내 쇼핑몰의 경우, 주말 평균 몰당 방문객수가 평소의 1만명에서 테러 이후 1천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
    - \* 뭄바이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에 총 22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Cinemax사 재무최고책임자인 Jitendra Mehta씨는 테러후 3일동안 관람객 격감으로 10만불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힘
- 12월 개최되는 국제 크리켓경기 광고시장 위축
  - TV 광고료가 10초에 3,500불에서 1,000불 수준으로 하락

□ 금융업

- 인도연합은행(UBI) 의장은 이번 테러공격으로 은행권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인도의 120개 UBI 지사들 중 118개시는 테러 발생 익일인 11.27일 정상적으로 영업
    - \* 테러로 영향을 받은 지역은 뭄바이 내에서도 인도 치안부대가 출입금지선을 친 Nariman Point지역(타지호텔 및 오베로이 호텔지역 근처)에만 국한
- 테러후 증권거래소 휴장 등으로 2일동안 200억불의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으나, 12.1일부터 증시, 외환시장은 정상화
  - 증시와 환율 등락폭이 적어 금융산업에 미친 충격은 미미한데 이는 인도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한데 기인

## □ 건설업

- 심리적 영향으로 2~3개월 정도 투자지연이 예상되나 장기적 건설수급 상황 및 펀더멘털을 볼때 3~6개월후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테러 대비차원에서 빌딩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안전 및 보안설비가 강화될 전망
  - 비상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설치
  - 테러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의 구축
  - 차량의 폭발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 설치
  - 교량에서 차량이동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차량번호판내 보안용 마이크로칩 내장

## □ 자원조달 및 SOC 프로젝트 분야

- 천연가스 조달을 위한 인도정부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진척 난항 예상
  - '이란-파키스탄-인도(IPI) 프로젝트'(75억불), '투르메니스탄-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인도 (TAPI) 프로젝트'(76억불) 등 2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단 우려
- 뭍바이 'Bandra-Worli' 해상교각 건설 프로젝트 완공 지연
  - 내년 1월말 개통예정인 전장 5.6km 규모의 교각건설 프로젝트(3억 3천만불)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컨설팅사(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엔지니어들이 안전을 사유로 출국하여 공사 지연 불가피

### 3. 우리의 대인도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이번 테러로 인도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존 수출입 거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07년에 19.3% 늘어난데 이어 금년에도 약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테러로 인한 영향보다는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영향, 인플레이션 등이 내년도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번 테러가 인도 경제성장의 단기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올해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인도정부의 수입규제 증가 가능성 또한 상존
- 지난 11.30일 인도정부는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열연철강제품(hot-rolled coils, sheet, plates, strips, flat product of iron ore non-alloy steel)에 대한 반덤핑조사 착수를 발표
- \* 조사대상 15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 나. 현지 진출기업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테러 발생후 우리 정부가 뭄바이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3단계 여행제한'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인도시장 진출 및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들의 인도 출장 계획이 단기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



\*3단계 여행제한 : 여행, 출장을 계획중인 경우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현지  
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할  
것을 권고하는 단계

- 기진출 기업의 경우, 테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인 매출 부진이  
예상됨
  - 특히 매장판매의 경우, 테러 기간중 내방객이 없어 일시적인 영업피해가 발  
생한 이외에, 추가적인 테러 위협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소비자의 소비심리  
를 위축시켜 단기적으로 매출에 악영향이 나타날 전망
- 테러 지속 및 이로 인한 위협은 인도내 전력, 통신 및 공단 부족 등 인프라  
부재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애로사항중의 하나로 항상 고려  
되고 있음.
- 그러나, 잦은 테러 위협이 항상 존재하여 왔던 인도 시장의 특성상, 테러규  
모가 추가적으로 커지거나 종교분쟁 또는 국가간 전쟁 양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다. 현지 주요 반응

### □ 한국상품 취급 바이어 및 인도 기업

- Mahindra & Mahindra(Venkateswaran 조달담당)  
(상용차 및 승용차 대메이커로 한국으로부터는 자동차용 금형 및 부품류를 수입중)
  - 테러가 인도의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 보다는 전세계적  
인 경기침체가 더 큰 문제임. Mahindra & Mahindra의 경우 영업실적에 큰  
영향은 없으며 3/4분기까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보이  
고 있음. 테러의 영향은 4~6주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도의 경  
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임

- Hindustan Motors(Siddharth Desai 회장)  
(Electric Motor 생산업체로 한국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수입 중)
  - 테러의 영향은 10~15일 이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비즈니스 차질은 없을 것임. 인도에서 테러는 생소한 일이 아니며 인도기업들은 테러를 기본적인 경영위험으로 간주하여 대처하고 있으므로 이번 테러로 투자, 교역, FDI에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봄. 투자자들 또한 테러를 국가적 위협으로 고려할 만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어 영향은 단기에 끝날 것임
  
- Deluxe Auto(Nirav Rupani, Director)  
(자동차 순정부품 취급 중소기업으로 한국으로부터는 연간 20만불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중)
  -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테러로 인한 영향이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봄. 중고 자동차부품의 영업수익은 8~10% 정도 줄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약 4~6개월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의 자동차시장은 앞으로 약 5년간 호황을 누릴 것으로 봄
  
- Narayan Polyurethane(Harshd Patel 사장)  
(한국으로부터 화학원료를 수입하는 석유화학 부산물 및 원부자재 수입 제조업체임)
  - 세계경기 침체 및 이번 테러로 화학원료 수요가 줄어 공장 생산량도 약 25% 가량 감소함.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3개월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임
  
- S사  
(연간 매출액 5천만불 규모의 기업으로 한국으로부터는 월간 5만불 규모로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 RF(러더퍼덤)제품을 생산해서 인도전역에 판매)
  - 테러 이후 2일 정도 심리적 충격이 있었으나,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 테러로 인한 영향 보다는 최근의 달러화 가치 상승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 유지 여부가 수입에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음

○ Elin Electronics Ltd.

(연간 매출액 3천만불 규모의 자동차 및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로 한국으로부터 AC/DC 모터 원부자재를 연간 10만불 이상 수입)

- 테러의 영향보다는 세계적 경기둔화로 인하여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고, 소비재 매출도 감소하여 한국제품을 포함하여 수입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일 예정임
-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므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구매는 늘리는 반면 한국, 미국 등으로부터의 도입 비중은 축소가 불가피함

○ Hiranandani Developers Pvt. Ltd.(Hiranandani 사장, 건설업)

- 관광산업 등이 일부 타격을 받고 있지만 건설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테러는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는 사안으로서 수출입 및 FDI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

○ Pantaloon Retail,(Kishore Biyani 사장, 유통업)

- 테러 발생 당일 1시간 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의 전부이며 뭄바이 내 13개 점포의 고객수요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올해 수익은 10억불 정도에 달하고 5~8%의 마진도 예상하고 있음

□ 현지진출 한국기업

○ 삼성전자 인도법인 뭄바이 지사

- 테러 발생후 2일 동안 매장 방문객이 없어, 판매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테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인도의 국가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중장기 투자 및 Focus 전략 수립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A사 뭄바이 지사

- 현재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사업을 준비중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국 본사 직원들의 장기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테러 발생으로 출장계획이 전면 취소됨. 앞으로는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도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고려해운 뭄바이 지사

- 테러범의 진입로와 인접한 구 뭄바이항(MBPT)의 경우 테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뭄바이 물동량의 98% 이상이 뭄바이 신항인 JNPT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화물처리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으로는 보안을 목적으로 해운 화물의 통관 검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화물 통관 지연이 예상됨

○ B사 뭄바이 지사

- 화학공장 설립을 전제로 인도내 투자가능지역 물색과 투자타당성을 분석하던 중이었으나, 이번 테러로 추진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함

○ C사(뉴텔리 소재)

- 현재까지 테러로 인한 사업 여건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함. 여타 한국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테러로 인한 신변위협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시 귀국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포스코 건설(뉴텔리 소재)

- 상업 및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테러가 발생하여 발주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음. 이미 테러로 인한 위협 요소는 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테러가 사업 여건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음

○ D상사(뉴델리 소재)

- 주 거래처인 Tata Steel의 본사가 테러지역인 타지마할 호텔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 테러 발생후 3일동안 일부 우려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 보다는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인도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및 경제위기로 인한 바이어의 대금 결제 지연이 사업 추진 애로사항의 핵심임

□ 현지투자진출 외국계 기업

○ General Motors(Balendran 부사장)

- 우리의 인도 투자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나, 테러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GM은 인도에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약 3억불을 투자하여 설립한 푸네지역 공장 가동을 지난 9월부터 시작하여 기존의 구자라트 공장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GM은 2억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엔진과 트랜스미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엔진공장은 2010년에 완공될 예정임

○ 폭스바겐 AG(Kurt Rippholz 그룹장)

- 테러 및 인도 자동차시장의 불경기와는 관계없이 현재 추진중인 7억 3,700만불 규모의 투자는 지속될 것이며, 마하리슈트라 공장은 내년 봄에 가동되어 연간 11만대가 생산될 예정임

○ Mercedes-Benzs India Ltd.(Wildred Aulbur CEO)

- 인도는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 선호지역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이번 테러사건이 냉정하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기를 바람

○ 푸르덴셜 자산운용

(영국의 Prudential PLC와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ICICI은행이 합작하여 세운 자산운용사)

- 이번 테러 사태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의 대두라는 측면보다는 기존의 리스크가 확인된 측면이 강함. 다만, 중앙은행이 환율 및 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투자여건에,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라. 뭄바이 테러에 따른 새로운 기회시장

### □ 인도 보안시장 수출 확대

- 인도내 호텔, 공항, 은행, 증권거래소, 쇼핑몰, 극장, 관공서의 시설보안 강화와 관련, 단기적으로 인도 민간기업의 현대화된 보안장비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이번 테러를 우리기업의 시설보안장비 수출확대 발판으로 활용 가능
- 테러재발 방지 및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인도정부의 대대적인 안보시스템 강화 및 현대화 종합대책 시행 관련, 우리기업의 대인도 경찰 및 대테러 장비 수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

### □ 특수가 예상되는 분야

- 보안관련 제품
  - 감시장비 : CCTV-카메라, CCTV 모니터링 중앙통제시스템, 무기장착 이동용 자동차(Van)
  - 통신장비 : 디지털 워키토키, 차량탐재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GPS(위치추적시스템), 휴대폰감청장치, 생물인식시스템
  - 보안장비 : 야간투시카메라, 전자폭발물탐지기, 폭탄X-ray기기, 방탄자켓, 해상구명자켓 등
- 경찰력 강화 및 현대화를 겨냥한 수송장비 및 무기
  - 수송장비 : 헬기, 고속보트, 방탄차량, 구급차, 소방차 등
  - 무기장비 : 첨단 소총 등 테러진압 무기 및 장비



## 첨 부 : 인도의 보안산업 시장전망

### [인도의 보안산업 시장전망]

- 전체 시장규모 20억불로 내년에는 35% 성장 전망
  - 연평균 20-22%씩 증가했으나 테러영향으로 내년에는 35% 성장한 27억불에 달할 전망
  - 호텔, 공항, 은행, 증권, 쇼핑몰, 극장, 병원, 관공서의 시설보안 강화로 보안설비 초과 수요 예상
    - CCTV-카메라, 인공지능카메라, 위험물 탐지기 등 전자보안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등
- 탐색 및 감시 솔루션 보안시장, 연평균 30% 이상 성장 전망
  - 배경촬영, 데이터분석, 생물인식시스템, 디지털비비오, 센서 탐지기 등 (2008년 시장규모 3억 6천만불)
- 비비오분석시장, 연평균 65.5% 성장 예상(IMS연구소 전망)
  - '04년 6,800만불에서 '09년에는 8억 3,900만불로 시장 확대
    - 사람이나 자동차의 행동을 탐지, 분석, 추적, 분류하는 전자장비 등
- 정부 부문 전자감시장비 시장, 연평균 60% 증가 (Zicom Pramoud Rao 사장 전망)
  - 테러후 비디오분석에 기초한 감시설비 수요 급등 영향
- 주요 시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경비요원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 경비업체 호황 전망
  -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원 확충 : '08년 500만명 → '09년 600만명

##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08-025	베이징올림픽의 중국 소비경제 효과	2008.6
08-026	초고유가 시대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7
08-027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 빅뱅	2008.7
08-028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2008.7
08-029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글로벌 중소기업을 향해	2008.7
08-030	한국 및 경쟁국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유형 선호 비교와 시사점	2008.7
08-031	작은변화 큰시장 - 마이크로트렌드를 포착하라	2008.7
08-032	인도시장 주요수출품목의 한·중·일 경쟁 분석	2008.7
08-033	KOTRA-무역협회 공동 FTA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	2008.8
08-034	이라크 진출, 이제는 준비할 때	2008.8
08-035	동서남아 진출, 이슬람 금융으로 하라	2008.8
08-036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2008.9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37	미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8.9
08-038	수출시장 긴급점검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 전략	2008.9
08-039	유럽 조선기자재 신홍시장 동향	2008.9
08-040	글로벌 탄소시장 현황 및 주요국의 대응 사례	2008.10
08-041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해설	2008.10
08-042	미국 금융위기 속에서 뜨는 상품	2008.10
08-043	중남미 수출현장의 한·중 경쟁현황	2008.10
08-044	기업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현황	2008.10
08-045	2008 중국 Grand Survey	2008.10
08-046	2008 베트남 Grand Survey	2008.10
08-047	유럽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8.11
08-048	인도 경제의 위기와 기회	2008.11
08-049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08.11
08-050	키워드로 살펴보는 2008년 글로벌히트상품	2008.11
08-051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동향과 시사점	2008.11
08-05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09년 수출전망	2008.12
08-053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섬유시장 변화와 시사점	2008.12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08-016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08.7
08-017	유럽 대형 IT 유통업체 진출 가이드 - 7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08.7
08-018	2008년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2008.7
08-019	Q&A로 본 베트남투자 A to Z	2008.7
08-020	2007/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CD)	2008.7
08-021	2008 경기국제보트쇼 종합보고서	2008.7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22	베트남 진출기업 청산매뉴얼	2008.7
08-023	태국 투자실무가이드	2008.7
08-024	2008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애로조사	2008.8
08-025	2008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애로조사	2008.8
08-026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해설 및 대응방안	2008.8
08-027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 -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호주,캄보디아,뉴질랜드 -	2008.8
08-028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 - 필리핀,베트남,미얀마,태국,스리랑카,말레이시아,파키스탄 -	2008.9
08-029	중국 주요 업종별 서비스시장 진출가이드	2008.9
08-030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08.9
08-031	투자실무가이드 -일본-	2008.9
08-032	All about MYANMAR FDI	2008.9
08-033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8.9
08-034	카자흐스탄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5	남아공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6	UAE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7	아제르바이잔 투자실무가이드	2008.9
08-038	우즈베키스탄 투자실무가이드	2008.10
08-039	이집트 투자실무가이드	2008.10
08-040	나이지리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10
08-041	2007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08.9
08-042	미국 건설중장비 및 상용차시장 진출가이드	2008.10
08-043	해외 전문인력 동향보고서	2008.11
08-044	폴란드 투자실무가이드	2008.11
08-045	<미개척 유망시장을 간다> 미얀마 편	2008.11
08-046	<미개척 유망시장을 간다> 캄보디아 편	2008.11
08-047	<미개척 유망시장을 간다> 앙골라 편	2008.11
08-048	부품소재 대일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 237개 일본 바이어 모니터링조사 -	2008.11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6	러시아 모스크바주 투자환경 및 한국전용공단 설명회	2008.8
08-017	러시아 지식재산권 설명회	2008.9
08-018	중국이후(Post China)의 동남아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8.9
08-019	중국시장 환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10
08-020	중국 공동물류센터 사업설명회	2008.10
08-021	중남미 주요국 투자설명회	2008.10
08-022	유망지역 해외투자전략 설명회	2008.10
08-023	2008 제3회 국제자원협력심포지움	2008.10
08-024	베트남공단 설명회/상담회	2008.10
08-025	중동부유럽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8.10
08-026	해외시장 긴급점검 - 위기 속의 기회를 잡아라	2008.10
08-027	이란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2008.10
08-028	글로벌M&A전략포럼	2008.11
08-029	CIS 미개척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11
08-030	미국 권역별 투자진출 설명회(Invest in US Seminar)	2008.11
08-031	2009 중국 산업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 설명회	2008.11
08-032	글로벌 그린 비즈니스 2008	2008.11
08-033	필리핀 투자진출 설명회	2008.11
08-034	걸프 및 마그레브 진출 설명회/상담회	2008.11
08-035	2012 APEC 프로젝트 설명회	2008.11

## ●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태국의 주요산업	2008.10
08-002	필리핀의 주요산업	2008.10
08-003	카자흐스탄의 주요산업	2008.10
08-004	UAE의 주요산업	2008.10
08-005	헝가리의 주요산업	2008.10
08-006	칠레의 주요산업	2008.10
08-007	나이지리아의 주요산업	2008.10

작성자

- ◆ 뭄바이 KBC 김정현 과장
- ◆ 뉴델리 KBC 이해인 과장
- ◆ 아대양주팀 이성훈 책임연구원

Global Business Report 08-054

**뭄바이 테러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발행인 | 조 환 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